**마1922(1) Note**

**◆우리의 참된 만족과 평강**

◇세상의 부요함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영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이 우리에게 배부름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청년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영을 기쁘게 하는 뭔가가 빠져 있는 것을 알았고,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돈은 진공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벌수록 더 진공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부요법칙 외의 방법으로 부유해진 사람은 이 부가 저주로 바뀌는 것을

깨닫는다.

잠0132. 이는 순박한(페티:어리석은,유혹에 빠지기 쉬운,미련한.단순한) 자들의 되돌아감은 그들을 죽이며, 바보들의 번창은 그들을 무너뜨리느니라.

잠1506. 합법적인 자의 집 안에는 많은 보화가 있으나, 사악한 자의 소득 안에는 어려움이 있느니라.

◇다음은 예수님께서 선다 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경험상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진 본유에 선에 의하여서는 마음의 참 평화를 얻지 못하며, 구원과 영생의 확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 많다.

청년이 나에게 와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질문 한 것은 이 점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대해 가진 최초의 생각이 틀렸다.

그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선을 부여하는 자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불러서 동반자의 한 사람으로 참 선인을 만들고 생명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슬퍼하며 나를 떠나갔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율법을 지키는 일과 자신의 선행에 의하여 만족할 수가 없었고 영생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다.

만약 그것이 평화를 주었더라면 그는 결코 나에게 질문하러 오지 않았을 것이며,

슬퍼하고 떠나지도 않고 기뻐하며 돌아갔을 것이다.

그 후 오래지 아니하여 바울이라는 청년이 나를 알고 구하고 있던 그 마음의 요구가 완전히 만족되었다.

그런고로 슬퍼하며 돌아가는 대신에 일체를 버리고 나를 따랐다 (빌3:6~15)

Ω빌0307. 그러나 내개 득이 되었던 무엇들이든지,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해(제미아:상해,손해,손실,손상)로 여겼느니라(완료 중간태).

빌0308. 뿐만 아니라, 의심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主)에 관한 지식(그노씨스:행위를 아는 것,지식,학식,학문)의 탁월함에 비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단지 상해(제미아:상해,손해,손실,손상)로 여기느니라, 그분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들의 상해를 겪었으며(제미오오:해치다,상해를 입다,잃다), 그것들을 단지 분(糞)으로 여기노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며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나를 좇는 자는 나에게서 참 평화와 영생을 얻게 된다"